

한양대 吳熙國 교수 평양서 첫 컴퓨터 강의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간의 교류가 다방면에 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계도 여러 분야에 걸쳐 남북한 전문가간의 교섭이 진행 또는 추진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가운데 가장 교류가 활발한 분야가 IT(정보기술)이다. 남북한 정보관계 전문가들이 중국에 모여 코드 통일을 논의해 머지않아 결론이 맺어질 전망이고 지난 6월에는 IT관계 벤처기업 CEO 6명이 방북하여 남북간의 정보기술 협력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IT 분야 남북교류 가운데 올해에 드러난 가장 커다란 변화는 남측의 전문가들이 북한에 들어가 북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직접 강의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강의사업은 교육을 통한 남북간의 교류는 다른 어느 형태의 협력보다 결실을 맺기 쉽기 때문에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글 프로그램 코드체계 달라

지난 6월 29일 방북, 평양에 있는 조선컴퓨터센터에서 1백20명의 연구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운영체제'를 강의하고 돌아온 吳熙國교수(41·한양대 전자컴퓨터공학부/사진)는 "내년부터 북한에는 대학과정에서 정보기술 교육을 받은 인력이 대거 양산될 전망"이라며 "남북협력을 통해서 우수하면서 노동비가 저렴한 북한 인력을 활용한다면 무서운 발전의 폭발력을 지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 吳교수를 만나 북한의 정보산업과 기술에 대해 들어 보았다.

■ 처음으로 북한에서 정보기술 교육을 하게 된 배경은.

내가 속한 한양대는 북한의 김책공대와 학술교류 협정을 맺어 학술교류사업을 펼쳐왔다. 그런데 김책공대 측에서 북한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정보기술 관계 교육을 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어 방북하게 된 것이다. 나는 컴퓨터 운영체제를, 같이 갔던 차제혁교수(38·정보통신학과)는 데이터 베이스를

북한의 소프트웨어 수준은 남한의 80~90년대 정도

한양대 전자컴퓨터공학부 吳熙國(41세)교수는 지난 6월 평양 컴퓨터센터에서 연구원 1백2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운영체제'를 강의하고 돌아왔다. 한양대 차제혁 교수와 동행하여 강의를 하고 돌아온 오교수는 그 곳에서는 한글프로그램을 '내나라'나 '단군'을 사용하고 있는데 남한의 프로그램과는 코드체계가 맞지않아 교재를 영문으로 번역해 교육하는 등 애를 먹었다고 한다.

■ 인터뷰 : 姜信龜(한서대 교수/본지 편집위원)



2002년 7월 29일 북한 평양의 조선컴퓨터센터에서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는 이승철 한양대 국제대학원장 모습

강의했다.

■ 교육은 조선컴퓨터센터에서 한 것으로 하는데 이 기관은 어떤 곳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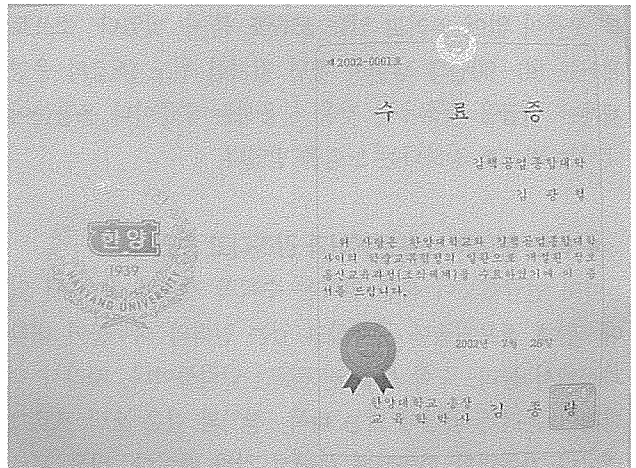
조선컴퓨터센터는 북한이 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해 90년대에 세운 것으로 북한의 정보기술연구를 총괄하는 곳이다. 평양에는 이 기관 외에 김일성대학, 김책공대, 평양정보센터 등 4개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북한의 IT연구를 주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 남북한간의 용어차이 등으로 강의에 애로를 겪지 않나.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한글에 대한 남북한 코드가 달라 이곳에 가져갔던 교재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었다. 그 곳에는 한글프로그램을 '내나라' 나 '단군'을 사용하고 있는데 남한의 한글프로그램과는 코드체계가 맞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교재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교육을 하는 등 애를 먹었다. 수강생들이 대학에서 영어교육을 받은 이들이어서 영어해득에 큰 문제가 없어 다행이었다.

■ 수강생들의 전체적인 수준은.

수강생 1백20명을 4개반으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했다. 모두가 김일성대학 아니면 김책공대를 졸업한 30대 연구원들이었는데 대체적으로 우수한 편이었다. 특히 모두가 열심이



어서 쉬는 시간에도 질문을 하는 바람에 쉴 수 없을 정도였다. 이들은 대학과정에서 수학교육을 철저히 받아 알고리즘 (Algorism)에 특히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 북한의 정보산업은 흔히 軟高強低 라고 불리운다. 소프트웨어는 강하지만 하드웨어는 약하다는 뜻인데 오교수는 어떻게 보았는가.

한마디로 인프라가 거의 안되어 있는 상태였다. 특히 전기 품질이 나빠 강의 중에 정전이 되거나 컴퓨터가 오작동하는 경험을 많이 했을 정도이다. 교육시설도 한반 정도는 컴퓨터를 갖추었으나 다른 반에는 시설이 안되어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와 교육을 받는 경우도 목



2002년 7월 29일 북한 평양의 조선컴퓨터센터에서 학생들과 기념촬영 모습

격할 수 있었다. 특히 첨단연구 장비에 대한 AS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해 사장되는 경우도 보았다. 고성능 복사기를 부품이 없어 놀리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소프트웨어는 80~90년대 남한이 했던 것처럼 윈도 98급의 운영체제에 한글을 덧씌우는 것을 사용하는 수준이나 응용분야에서는 비교적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 어느 분야의 소프트웨어가 강하다고 보았나.

이미 언급했듯이 북한 인력은 수학적 기초가 잘 되어 있다. 현재 정보기술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대부분이 대학 과정에서 물리, 수학 등을 전공했던 인력들이다. 따라서 수리적인 논리가 바탕이 되는 바둑, 장기와 같은 오락 프로그램이나 자동변환 항공관제 등에서 강한 편이다. 바둑 프로그램인 은바둑은 높은 수준으로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일부 해상관제 소프트웨어는 독일에 수출되어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밖에도 동의학을 전산화한 소프트웨어도 평판이 좋아 우리나라에 수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한편 인터넷 망은 있는 것 같으나 폐쇄적이고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북, IT인력 개발을 국가전략으로

■ 북한은 최근 제한적이거나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고 신의주, 개성 등을 개방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IT 분야에서 최근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나.

북한은 지난 98년부터 김정일위원장 지시로 정보기술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난국을 해결하

기 위해 두뇌자원만 있으면 일으킬 수 있는 IT인력 개발을 국가적 전략으로 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이 정책에 따라 북한의 평양은 물론 지방대학까지 컴퓨터 과학대학을 세우는 등 대대적으로 IT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런 정책의 결과로 내년부터는 북한 전역에서 IT인력이 배출될 예정이다. 현재 북한은 이 분야 인력이 크게 모자라는 형편이지만 몇년 안에 크게 발전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이런 교육 외에도 현재 북한사회에는 정보기술에 대한 열망이 매우 고조되어 있는 분위기였다. 한번은 식당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컴퓨터 교육대상에 선발되었다며 자랑하는 것을 보았는데 사회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정보기술 분야에서 남북한이 어떤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았나.

북한 IT인력은 우수하면서도 저렴한 점이 특징이다. 북한 노동력은 한달에 40달러 수준이다. 개성에 건설될 공단에서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남북 협력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이런 협력 이전에 남북한 코드의 단일화 자판의 통일 등 선행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앞으로도 북한에서 정보기술에 대한 교육을 계속 할 예정인가.

올 겨울에도 북한측이 요청하는 분야에 대한 교육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양대는 오는 12월 IT 분야 외에도 경영 분야까지 강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㉔